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25.(목) 12:00
(지 면) 2026. 6. 26.(금) 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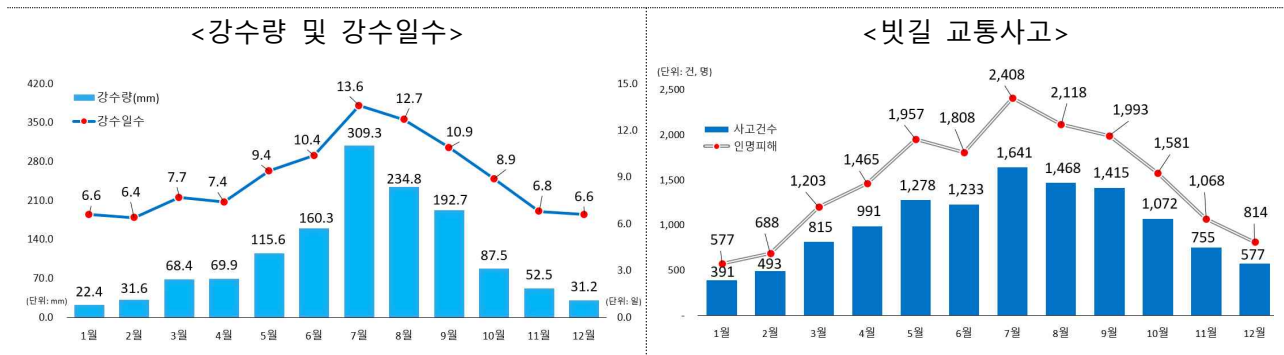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에 조심하세요!

- 최근 5년간 빗길 교통사고, 퇴근 무렵 가장 많이 발생
- 빗길 운행 시에는 교통법규 준수 철저 및 제한속도의 20% 이상 감속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비가 자주 오는 여름철로 접어들며, 빗길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2021~2025년 평균) 동안 월별 강수량과 강수일수를 살펴보면, 7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309.3mm의 비가 13.6일 내렸고, 빗길 교통사고 건수(1,641건)와 인명피해(2,408명)도 7월이 가장 많았다.

< 최근 5년(2021~2025년, 평균)간 강수 및 빗길 교통사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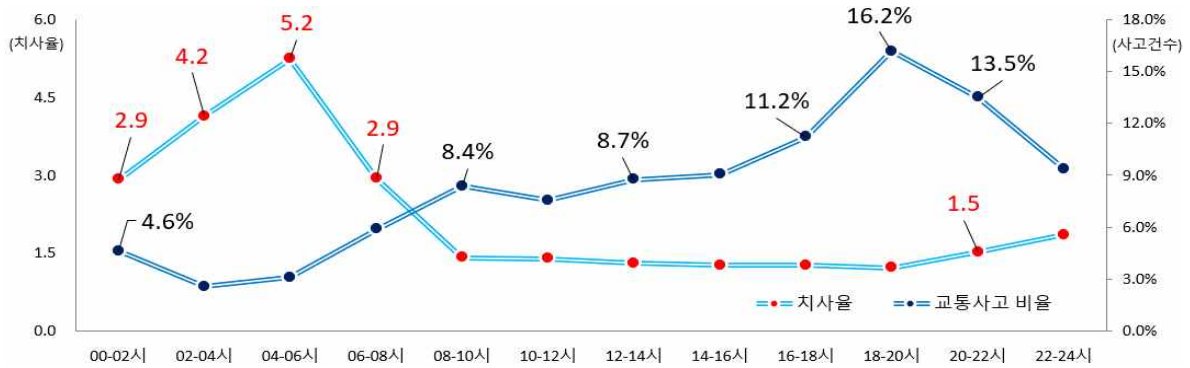


[출처: 강수량 및 강수일수 (기상청), 빗길 교통사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빗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3.4%)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신호위반(13.5%) ▲안전거리 미확보(11%)가 그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서서히 증가해 퇴근 시간인 18시에서 20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16.2%)했고,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사율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5.2%)가 가장 높았다.

< 최근 5년(2021~2025년, 평균)간 시간대별 빗길 교통사고 및 치사율 현황 >



[출처: 빗길 교통사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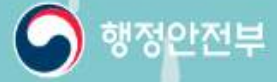
빗길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지기 쉽고 제동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지므로, 규정 속도보다 감속 운행하며 급제동에 주의한다.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에는 50%까지 속도를 낮춰 안전하게 운행한다.

비 오는 날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더욱 줄인다. 우회전 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나간다.

특히, 평소에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과 새벽시간에 비가 오면, 빗 반사로 인해 도로 경계 구분이 힘들고, 물웅덩이나 돌출물 등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운전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하중목 예방정책국장은 “비 오는 날은 도로가 미끄럽고 돌발 상황도 많아,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라며, “빗길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총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책임자	과장 이치선 (044-205-4510)
		담당자	사무관 송정호 (044-205-4505)
담당 부서 <교통사고 통계>	한국도로교통공단 AI데이터전략처	책임자	처장 홍경식 (033-749-5260)
		담당자	과장 박해수 (033-749-5266)



비 잦은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에 주의하세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운전 하세요!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 확인 후 운행하기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므로
규정 속도보다 감속 운행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교통법규 준수 철저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동 자제